

경남 함안의 서원판본에 대한 연구

A Study on the Publications of Seowons in Haman, Gyeongsangnam-do

윤 상 기 (Yun, Sang-Gi)*

◁ 목 차 ▷

- | | |
|------------------|-----------|
| 1. 들어가면서 | 5. 판본의 성격 |
| 2. 함안의 사정 | 6. 나오면서 |
| 3. 함안의 서원에 대한 개관 | <참고문헌> |
| 4. 서원판본 | |

< 초 록 >

이 글은 1910년 당시의 경남 咸安郡에 所在했거나 소재한 적이 있었던 서원들에서 그때까지 발행했거나 발행했을 가능성이 있는 판본들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 것이다.

해당되는 서원은 모두 19개이다. 이들 중 5개 서원에서 6종의 판본을 발행했고, 3종의 판본을 발행했을 가능성이 있다. 발행사실이 확실한 것은 德淵書院에서 발행한 『武陵雜稿』, 西山書院에서 발행한 『漁溪先生集』, 『咸安趙氏十忠實錄』(1784序) 및 『咸安趙氏十忠實錄』(1794序), 松汀書院에서 발행한 『金羅傳信錄』 및 廬陽書院에서 발행한 『晚默堂先生文集』이고, 발행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은 德巖書院의 『大笑軒先生逸稿』, 西山書院의 『損庵集』 및 松汀書院의 『澗松先生文集』이다. 이들 판본들에 대해서는 서지사항을 정밀기술하고 서원판본임을 밝히거나 발행 가능성을 제시했다.

발행했을 가능성이 있는 판본들까지 포함한 전체 9종의 판본들을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점들을 밝혀냈다.

첫째, 集部의 別集類가 6종이고 史部의 傳記類가 3종으로 集部의 別集類가 다수이다.

둘째, 모두 목판본이다.

셋째, 18C에 발행된 것이 6종이고 19C에 발행된 것이 3종으로 주로 18C에 발행되었다.

넷째, 6종의 저자가 관련 서원의 배향자 본인들이고 3종의 편·저자는 배향자의 후손들로서 모두 관련 서원의 배향자들과 직·간접으로 관련이 있다.

要語 : 함안, 서원판본, 德巖書院, 德淵書院, 西山書院, 松汀書院, 廬陽書院

* 동의대학교 인문대학 문헌정보학과 부교수 (skyoon@deu.ac.kr)

접수일: 2009년 12월 5일 최초심사일: 2009년 12월 6일 심사완료일: 2009년 12월 12일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publications, either published or assumed to be published by seowons(서원) located in Haman(함안), Gyeongsangnam-do(경상남도) by the year 1910.

Out of the nineteen seowons, five published six books and might have published three more books. The books confirmed to be published by seowons are as follows: *Mureung japgo*(『武陵雜稿』) by Deogyeon Seowon(德淵書院), *Eogye-seonsaeng jib*(『漁溪先生集』), *Haman Jo-ssi sipchung sillok*(foreword in 1784)(『咸安趙氏十忠實錄』(1784序)), and *Haman Jo-ssi sipchung sillok*(foreword in 1794)(『咸安趙氏十忠實錄』(1794序)) by Seosan Seowon(西山書院), *Geumna jeonsinrok*(『金羅傳信錄』) by Songjeong Seowon(松汀書院) and *Manmukdang-seonsaeng munjib*(『晚默堂先生文集』) by Yeoyang Seowon(廬陽書院). And *Daesoheon-seonsaeng ilgo*(『大笑軒先生逸稿』), *Sonam jib*(『損庵集』) and *Gansong-seonsaeng munjib*(『澗松先生文集』) are assumed to have been published by Deogam Seowon(德巖書院), Seosan Seowon(西山書院), and Songjeong Seowon(松汀書院), respectively. In this research, bibliographical information of these books have been described in detail and it is also confirmed that they were published either certainly or possibly by seowons.

An analysis of these nine books shows the following characteristics:

First, six books are categorized into individual works(別集) of the class of Collection of Works(集部), and three were categorized into biography(傳記) of the class of History(史部).

Second, they were all printed with wooden movable types(목판본).

Third, six books were published in the 18th century and three in the 19th century.

Forth, they are all directly or indirectly related to the worshipers of related seowon. Six of them were works of the scholars enshrined at those seowons and three were written or edited by their descendants.

Keywords : Haman, Publications of Seowon, Deogam Seowon, Deogyeon Seowon, Seosan Seowon, Songjeong Seowon, Yeoyang Seowon

1. 들어가면서

조선시대에 사립교육기관의 큰 축을 이루었던 서원은 조선 중엽부터 설립되기 시작하였다. 서원은 기본적으로 유생들이 모여 강당에서 학문하는 강학의 기능과 祠宇에 선현의 위패를 모시고 제사 드리는 제향의 기능을 갖춘 곳이다. 그 외에도 도서관적 기능과 향촌자치 운영기구로서의 기능도 함께 갖추고 있었다. 아무튼 서원은 道學을 이상으로 삼던 사대부 사림 세력들의 정신세계가 반영되어 형성된 것으로서 성리학이 만들어낸 가장 대표적인 조선시대의 산물이다.¹⁾

서원에서는 필요에 따라 자체적으로 서적들을 발행하기도 했었는데, 필자는 이러한 서원판본들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그동안 몇 차례에 걸쳐 조사, 연구한 것을 발표한 적이 있다. 지금까지 필자가 발표한 것으로 개별 서원의 판본으로는 경주 玉山書院, 산청 德川書院 및 밀양 禮林書院을 대상으로 한 것들이 있고, 지역 소재 서원들의 판본으로는 함양과 진주를 대상으로 한 것들이 있다.²⁾ 이 연구는 이러한 서원판본에 대한 일련의 연구의 하나로 경남 咸安의 서원판본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 것이다.

연구 대상으로 삼은 판본은 1910년 경술국치 이전에 당시 함안군에 所在했거나 소재한 적이 있었던 서원에서 발행한 것으로 한정한다. 발행 시기를 1910년으로 제한한 것은 조선 말기에 흥선대원군에 의한 대규모의 서원·사우의 철폐가 있고 난 후, 주로 일제강점기와 해방 이후에 복설 또는 신설된 서원들은 근대화와 서원에 대한 인식의 변화 등에 영향을 받아 전통적인 서원 본래의 기능을 충분히 수행

1) 안창현 사진, 이상해 글, 『書院』(서울: 열화당, 1998), 7.

2) ① 윤상기, “慶州 玉山書院版本에 관한 연구,”(東義大學校)『東義論集』第38輯, 人文·社會科學篇(2003. 2), 77-95.

② 윤상기, “山淸 德川書院版本考,”(東義大學校)『東義論集』第40輯, 人文·社會科學篇(I)(2004. 2), 423-443.

③ 윤상기, “密陽 禮林書院版本考,”(동의대학교 문화콘텐츠연구소)『인문학과 문화』(2004. 2) (문화콘텐츠연구-9), 367-402.

④ 윤상기, “경남 함양군의 서원판본에 대한 연구,” 『書誌學研究』 第32輯(2005. 12), 237-271.

⑤ 윤상기, “경남 진주의 서원판본에 대한 연구,” 『書誌學研究』 第40輯(2008. 9), 295-322.

하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이 시기에 발행된 서적 역시 서원 본래의 성격에 부합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또한 판본의 발행처에 대한 한계도 분명히 해 둘 필요가 있다. 白雲洞書院³⁾에서 비롯한 조선의 서원은 조선 후기에 와서는 인물위주로 서원이 濫設되어 사우와의 구별이 모호해진다. 또한 창설된 후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서원의 기능과 명칭 상의 변화를 겪는 경우도 있었다.⁴⁾ 본 연구는 서원판본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경술국치가 있는 1910년 이전에 설립된 서원을 대상으로 하되, 창설 때부터 1910년까지의 기간 내에 서원으로 불렸던 시기에 발행된 판본만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분명한 발행 기록은 없지만 각종 책판목록이나 邑誌의 藏板記錄 혹은 기타 기록들의 분석을 통해 1910년 이전에 서원에서 발행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되는 판본들도 참고로 함께 언급 하겠다.

2. 함안의 사정

현재의 함안군은 지리적으로 경상남도의 중남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북쪽으로는 창녕군과 의령군에 접하고, 동쪽으로는 창원시, 남쪽으로는 마산시와 진주시, 서쪽으로는 의령군에 접한다. 남쪽과 서쪽에는 여항산·오봉산·방어산 등 비교적 높은 산들이 솟아 있는 반면, 북쪽으로는 남강과 낙동강이 흘러 南高北低의 지형을 이루고 있다. 2008년도 현재의 통계에 의하면, 면적은 416.81km²로 경상남도 전체 면적의 4.0%를 차지하며 10개 시 10개 군 중에서 13위에 해당된다.⁵⁾

함안군의 연혁을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⁶⁾

함안면, 칠원면, 군북면 등지에서 선사시대의 유적인 지석묘군이 발견되어 늦

3) 현재의 紹修書院

4) 윤상기, “경남 함안군의 서원판본에 대한 연구,” 239-240.

5) ‘경남통계연보’ http://www.gsnd.net/03_open/04_statistics [2009. 11. 22. 검색].

6) 주로 ‘함안군’ <http://www.haman.go.kr> [2009. 11. 22. 검색]을 참고하였으며 그 외 잡다한 자료들을 이용하였다.

어도 청동기시대 이전부터 사람들이 거주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삼한시대에는 弁韓의 12국 중 하나인 弁辰 安耶國이 형성되었다.

가야시대에는 駕洛國의 伽倻聯盟 중 阿羅伽倻의 영역이었다.

남북국시대 동안 法興王(신라) 때 신라가 병합하여 阿尸良郡을 설치하였으며, 景德王 16년(757)에 전국적인 지방편제가 행하여질 때 咸安郡을 설치하고, 漆吐縣을 漆隄縣으로 개칭하였다.

고려시대에는 고려 초에 칠계현은 漆原縣으로 개칭되고, 成宗(고려) 2년(983)에 함안군은 咸州로 개칭된다. 顯宗(고려) 9년(1018)에 이르러 함주가 함안군으로 개칭되고 칠원현과 함께 金州⁷⁾의 屬郡이 된다. 明宗(고려) 2년(1172)에는 縣을 설치하면서 분립시켰으며, 恭愍王(고려) 22년(1373)에 군으로 환원된다. 恭讓王(고려) 3년(1391)에는 칠원현도 분립된다.

조선시대에 들어와서는 燕山君 11년(1505)에 都護府로 승격되었다가 中宗 1년(1506)에 군으로 환원된다. 한편, 칠원현은 宣祖 34년(1601)에 昌原都護府에 병합되었다가 光海君 9년(1617)에 복원되었으며, 그 후 高宗 32년(1895)에 군으로 개편된다.

대한제국시대인 光武 10년(1906)에는 칠원군을 함안군에 통합하고, 晉州郡의 3개 면을 편입하는 대신 龜山面을 昌原郡으로 이관하였다.

일제강점시대인 1914년에 진주군에서 편입되었던 3개 면을 진주군으로 다시 이관하고, 竹南面을 郡北面에 통합시켰다.

현재의 함안군은 가야읍의 1읍과 함안면, 군북면, 법수면, 대산면, 칠서면, 칠북면, 칠원면, 상인면 및 여항면의 9읍을 관할하고 있으며, 2009년 10월 현재 총인구 수는 66,623명이다.⁸⁾

조선시대 함안에 거주했던 것으로 조사된 氏族들과 이들 재지씨족들 중 이 지역 서원에 배향자를 둔 씨족들을 정리해보면 <표 1>과 같다.

7) 지금의 ‘金海’에 해당된다.

8) ‘함안군’ <http://www.haman.go.kr> [2009. 11. 22. 검색].

<표 1> 조선시대 함안의 재지씨족과 배향자를 둔 서원

성	본관	배향자를 둔 서원 (배향자 수)	성	본관	배향자를 둔 서원 (배향자 수)
姜	咸安		尹	咸安	
高	高敞		李	星山	道林書院(1), 東山書院(3), 松汀書院(1), 盧陽書院(1)
郭	玄風			驪州	盧陽書院(2)
具	昌原			仁川	道溪書院(1)
金	金州			長水	清溪書院(2)
	漆原			載寧	道溪書院(1), 道林書院(1), 仁衢書院(1)
羅	?			咸安	
南	宜寧	西山書院(1)	鄭	清州	琴川書院(1), 道林書院(1)
盧	?			咸安	
柳	文化		丁	漆原	
朴	慶州	道林書院(1), 松汀書院(1), 坪川書院(3)	趙	咸安	德巖書院(2), 道溪書院(1), 道南書院(1), 道巖書院(1), 西山書院(1), 松汀書院(1), 盧陽書院(1)
	密陽	德巖書院(1), 道溪書院(1), 盧陽書院(1)			
潘	巨濟		周	尙州	沂陽書院(5), 德淵書院(3)
裴	金海	德淵書院(2), 道巖書院(1)	蔡	咸安	
成	昌寧	西山書院(1)	崔	竹山	
安	廣州	盧陽書院(1), 泰陽書院(1)	河	晉州	
	順興	杜陵書院(3), 新巖書院(1)	韓	?	
魚	?		許	?	
吳	?		洪	?	
劉	咸安		黃	昌原	德淵書院(1), 道巖書院(1)
尹	漆原	鴻浦書院(5)			

조선시대 함안의 재지씨족은 本貫이 파악되지 않은 성까지 포함하여 모두 41貫31姓이 조사되었다. 이들 중 도합 17관11성이 서원의 배향자를 배출하여 咸安趙氏는 가장 많은 7곳, 星山李氏는 4곳, 慶州朴氏, 密陽朴氏 및 載寧李氏는 3곳, 金海裴氏, 廣州安氏, 順興安氏, 清州鄭氏, 尙州周氏 및 昌原黃氏는 2곳, 宜寧南氏, 昌寧成氏, 漆原尹氏, 驪州李氏, 仁川李氏 및 長水李氏는 1곳의 서원에 각각 배향자를 두고 있다.

함안 출신의 대표적 인물들을 살펴보면, 고려시대에는 恭愍王 때 흥건적을 물리친 구국장군인 李芳實將軍(1298-1362), 愛民의 정승이었던 尹桓(?-1386), 위화도회군을 반대한 趙純將軍(?-1398), 고려 말 不事二君의 충신인 琴隱 趙悅(?-?), 杜門洞 72賢의 한 사람인 茅隱 李午(?-?) 등이 있었고, 조선시대에는 조선 초 청백리였던 東山 李好誠(1397-1467), 龍飛御天歌를 짓는데 참여한 龜川 魚孝瞻(1405-1475), 생육신의 한 사람인 漁溪隱者 趙旅(1420-1489), 燕山君 때 충간으로 일생을 마친 梅軒 李仁亨(1436-1497)과 尹碩輔(?-1505), 청백리였던 無盡 趙參(1473-?), 서원의 창시자인 愼齋 周世鵬(1495-1554), 임진왜란 때 창의한 우국충절의 용장 匡西 朴震英(1569-1641), 英祖朝 李麟佐(?-1728)의 亂 때 倡義하여 逆亂을 평정한 菊潭 周宰成(1681-1743) 등을 들 수 있다.

3. 함안의 서원에 대한 개관

1910년까지 당시의 함안군 영내에 한 때라도 존속했던 서원은 모두 19개로 <표 2>와 같다.

<표 2> 함안군의 서원들

서원명	창건년도* /사액년도	배향자	비고**
琴川書院	宣祖 2(1569)	鄭述	高宗 5(1868) 훼손
沂陽書院	肅宗 27(1701)	周世鵬 周善元 周珏 周宰成 周道復	高宗 5(1868) 훼손
德巖書院	光海君 9(1617)	朴漢柱 趙純 趙宗道	高宗 5(1868) 훼손
德淵書院	宣祖 24(1591) /肅宗 2(1676)	周世鵬 裴世績(이하 별사) 周博 裴錫祉 黃悋 周孟獻	桐林書院으로 창건 임진왜란으로 소실 肅宗 2(1676) 德淵書院으로 재건 高宗 5(1868) 훼손
道溪書院	正祖 4(1780)	李瀟 朴震英 李休復 趙益道	高宗 5(1868) 훼손
道南書院	哲宗 5(1854)	趙埜	高宗 5(1868) 훼손

道林書院	顯宗 13(1672)	鄭述 李侁 朴齊仁 李澍	高宗 5(1868) 樞철
道巖書院	肅宗 5(1679)	趙靈得 黃後榦 裴汝慶 趙益城	高宗 5(1868) 樞철
東山書院	肅宗 3(1677)	李好誠 李僖 李侃	高宗 5(1868) 樞철 현 명칭: 德山書院
杜陵書院	純祖 32(1832)	安愨 安憲 安信甲	高宗 5(1868) 樞철
西山書院	肅宗 29(1703) /肅宗 39(1713)	趙旅 元昊 金時習 李孟專 成聃壽 南孝溫	高宗 5(1868) 樞철 光武 6(1902) 西山書堂 건립
松汀書院	景宗 1(1721)	趙任道 李侁 朴齊仁	高宗 5(1868) 樞철
新巖書院	景宗 1(1721)	安灌	高宗 5(1868) 樞철
廬陽書院	肅宗 46(1720)	趙參 安宅 朴昨 李明怙 李景藩 李景茂	廬陽祠로 창건 正祖 13(1789) 서원으로 승격 純祖 2(1802) 중수 高宗 5(1868) 樞철
仁衢書院	哲宗 14(1863)	李午	대원군 서원철폐령에 의해 樞철
淸溪書院	顯宗 11(1670)	李時黼 李三老	高宗 5(1868) 樞철
泰陽書院	仁祖 18(1640)	安挺	高宗 5(1868) 樞철
坪川書院	高宗 22(1885)	朴希參 朴齊賢 朴齊仁	高宗 5(1868) 樞철
鴻浦書院	正祖 6(1782)	尹桓 尹子當 尹志 尹碩輔 尹卓然	高宗 5(1868) 樞철

* 창건년도는 서원으로 창건한 때를 기본으로 하였으나, 사우로 창건하여 서원으로 승격되었을 경우에는 사우의 창건년도를 표시하였다.

** 1910년까지의 상황만 요약하였다.

이들 서원들을 창건시기별로 보면 16C에 2개, 17C에 6개, 18C에 7개, 19C에 4개가 각각 세워졌다. 사액을 받은 서원은 德淵書院과 西山書院 뿐이며, 나머지 17개 서원은 미사액 서원들이다.

함안의 이들 19개 서원들 중 1910년 이전에 서적을 한 번이라도 발행한 것으로 밝혀졌거나 발행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 곳은 모두 5곳으로 德巖書院, 德淵書院, 西山書院, 松汀書院 및 廬陽書院이다.

4. 서원판본

1910년까지 서적을 발행했거나 발행했을 가능성이 있는 서원들과 그 판본들에 대하여 살펴보겠다. 먼저 서원에 대하여 간략하게 소개하고, 그 판본들에 대해서는 상세한 목록을 기술한 후 간략한 해제와 더불어 발행사실을 증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발행사실이 확실한 판본들을 먼저 설명하고, 발행했을 가능성이 있는 판본들은 그 뒤에 따로 언급하겠다.

4.1 德巖書院

현위치: 慶尙南道 咸安郡 咸安面 鳳城里 848번지

창 건: 光海君 9년(1617)

배향자: 朴漢柱(1459-1504) · 趙純(? -1398) · 趙宗道(1537-1597)

光海君 9년(1617)에 창건되었으며, 조선 초기의 문신인 迂拙子 朴漢柱, 위화도회군을 반대한 趙純將軍, 조선 중기의 문신인 大笑軒 趙宗道 등을 향사했다. 흥선대원군의 서원철폐령으로 高宗 5년(1868)에 훼손된 뒤 복원되지 못하고 현재는 德巖書院遺墟碑만 세워져 있다.

刊印이 확실한 판본은 없고 책판목록과 음지에 藏板記錄이 있어서 간인 가능성만 추정되는 판본이 1종 있다.

大笑軒先生逸稿 / 趙宗道(朝鮮) 著. -- 木板本(初刊). -- [發行地不明]: [發行處不明], 英祖 45(1769)序

年譜, 3卷, 共1冊 : 插圖, 四周單邊 半郭 21.8 × 16.3 cm, 有界, 10行20字, 內向2葉花紋魚尾

版心題: 大笑軒逸稿

序: 上之四十五年己丑(1769)菊秋前任嘉義大夫司憲府大司憲兼弘文館提學
藝文館提學同知春秋館事蔡濟恭書

序: 上之二十四年戊辰(1748)季冬壬寅後學平原李光庭謹書

序: 癸酉(1693)陽月上澣輔國崇錄大夫判中樞府事柳命天序

序: 年月日西原後人韓夢參序

大笑軒 趙宗道(1537-1597)의 시문집이다.

저자의 손자인 趙徵聖(?-?)과 道峰 趙徵天(1609-1660), 증손인 趙疇(?-?) 등이 임진·정유왜란 때 유실되고 남은 詩 약간 首와 雜著를 수집한 것을, 5세손 趙華世(?-?)의 부탁을 받고 訥隱 李光庭(1674-1756)이 英祖 24년(1748)경 校正·編次하고 諸賢들의 글과 遺事 등 관계 기록을 모아 첨부하고 年譜를 改定하였다.⁹⁾ 그 후 7세손 東窩 趙輝晉(1729-1796)이 樊巖 蔡濟恭(1720-1799)의 서문과¹⁰⁾ 世系 등을 첨부하여 英祖 45년(1769)경에 간인한 것이다.

구체적인 서원 간인 기록은 찾지 못했으나, 책판목록과 읍지의 장관기록들을 통해 서원 간인 가능성을 추정할 수 있다. 책판목록들 중에 『林園十六志』, 怡雲志 7, 圖書藏訪, 京外鏤板, 集類條와¹¹⁾ 『鏤板考』, 集部 上の 別集類 上에¹²⁾

9) ① ‘余之甥趙君徵聖與弟徵天 哀集其先王父大笑先生遺藁 來示余 因請弁其首’ 趙宗道, 『大笑軒先生逸稿』, 3卷1冊, 木板本 ([發行地不明]: [發行處不明], 英祖 45(1769)序), <大笑軒先生文集>[韓夢參], 張1左.
 ② ‘先生五世孫華世氏 携先生逸藁 北走五百里 以訂正之役 屬之光庭 … 敢忘其老弊孤陋 敬爲之校次遺文 附以諸賢之所論撰及朝家褒錄之章 而又爲之改定年譜如此 極知其愚且僭矣 然先生之隻字片言 不可以不傳之世 遺事之散出於他書 凜凜烈烈 軒天地而光日月者 又不可不俱粹而備錄之 使有目者 皆可觀也 編既已’ 趙宗道, 『大笑軒先生逸稿』, <大笑軒先生逸藁序>[李光庭], 張2.

10) ‘此先生後孫輝晉氏 所以三四請不懈 而不佞之不敢辭焉者 於是乎敬書之如此’ 趙宗道, 『大笑軒先生逸稿』, <大笑軒先生集序>[蔡濟恭], 張4右.

11) 徐有渠 編, 『林園十六志』 卷105, 怡雲志 7, 圖書藏訪, 京外鏤板, 鄭亨愚·尹炳泰 編著, 『韓國의 冊板目錄』 下 (서울: 保景文化社, 1995) (延世大學校 國學研究院 國學研究叢書 4), 891.

12) 徐有渠, 『鏤板考』, 7卷1冊, 鉛印本 (京城: 大同出版社, 昭和 16(1941)), 鄭亨愚·尹炳泰

‘大笑軒集三卷’의 책판이 咸安 德巖書院에 藏板되어 있는 것으로 所載되어 있다. 그리고 『書冊目錄』의 各邑所在 아래의 咸安條와¹³⁾ 『冊板錄』의 慶尙道各邑所在冊板 아래의 咸安條에도¹⁴⁾ 각각 ‘大笑軒集一卷’이 所載되어 있는데, 그 아래에는 다 같이 ‘在德巖書院’이라고 되어 있다. 『書冊目錄』과 『冊板錄』에서는 『林園十六志』나 『鏤板考』와는 달리 ‘一卷’으로 표기되어 있는데, 이는 冊數를 표기할 때 단위를 모두 卷으로 표기하였기 때문이다. 읍지로는 純祖 32년(1832)에 편찬된 『慶尙道邑誌』에서 장관기록을 찾을 수 있는데, 第15冊에 수록된 <咸安郡邑誌>의 마지막에 있는 <冊板>條에 ‘大笑軒集板’이 德巖書院에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¹⁵⁾

발행년은 卷頭に 있는 체제공이 지은 서문의 작성년도로 보아 英祖 45년(1769)경으로 추정된다.

판본은 규장각(古3428-533), 성균관대학교(D3B-247),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D1-A1526), 국립중앙도서관(한46-가227) 등에서 소장하고 있다.

민족문화추진회가 1990년에 규장각장본을 『(影印標點)韓國文集叢刊』, 第47輯으로 영인하였으며, 韓國學文獻研究所에서도 1981년에 영인하여 널리 보급하였다.¹⁶⁾

編著, 『韓國의 冊板目錄』 下 (서울: 保景文化社, 1995) (延世大學校 國學研究院 國學研究叢書 4), 1122.

13) 『書冊目錄』, 1冊, 筆寫本, 鄭亨愚·尹炳泰 編著, 『韓國의 冊板目錄』 下 (서울: 保景文化社, 1995) (延世大學校 國學研究院 國學研究叢書 4), 1216.

14) 『冊板錄』, 1冊, 寫本, 鄭亨愚·尹炳泰 編著, 『韓國의 冊板目錄』 補遺·索引 (서울: 保景文化社, 1995) (延世大學校 國學研究院 國學研究叢書 4), 1493.

15) ‘大笑軒集板 在德巖書院’ 韓國學文獻研究所 編, 『邑誌』, 一 慶尙道 編①, 影印本 (서울: 亞細亞文化社, 1982), 713.

16) 趙宗道, 『大笑軒先生逸稿』, 曹植 等著, 韓國學文獻研究所 編, 『南冥集·德溪集·介庵集·玉洞集·篁岳集·大笑軒集·禮谷集·覺齋集』 (서울: 亞細亞文化社, 1981) (李朝中期思想叢書), 557-601.

4.2 德淵書院

현위치: 慶尙南道 咸安郡 漆原面 龍亭里 966-1번지

창 건: 宣祖 24년(1591)

배향자: 周世鵬(1495-1554)

德淵別祠: 裴世績(?-?) · 周博(1524-1588) · 裴錫祉(1523-1591) ·
黃悞(?-?) · 周孟獻(1617-1703)

宣祖 24년(1591)에 함안 출신의 문인으로서 크게 이름을 떨친 中宗 때의 문신·학자 愼齋 周世鵬의 업적을 추모하기 위해 사림에서 뜻을 모아 桐林書院으로 창건하였다. 임진왜란으로 소실된 것을 顯宗 원년(1660)에 漆原縣 南阜에 중건하여 南阜書院이라 불렀다. 肅宗 2년(1676)에 ‘德淵’으로 사액을 받아 사액서원이 되었다. 高宗 5년(1868)에 대원군의 서원철폐령에 의하여 훼철되었다가 1911년에 德淵書堂으로 재건하였으며 1964년에 중건 복원하였다. 주세붕은 尊德祠에 모시고 있으며 그 우측에 德淵別祠가 있다.

肅宗 4년(1678)에 창건한 德淵別祠에는 조선 中宗 때의 문신인 靜谷 裴世績을 비롯하여 龜峯 周博, 春岡 裴錫祉, 獨梧 黃悞 및 守口齋 周孟獻을 봉안하였다. 주박은 주세붕의 양자이고, 주맹헌은 주세붕의 손자다. 高宗 5년(1868)에 훼철되었다가 1976년에 중건되었다.

德淵書院은 1983년 7월 20일에 경상남도문화재자료 제67호로 지정되었다.

간인사실이 분명한 판본으로 다음의 1종이 있다.

武陵雜稿 / 周世鵬(朝鮮) 著; 周秉恒(朝鮮) · 周相炫(朝鮮) 共編. -- 木板本(重刊). -- [漆原]: 德淵[書院], 哲宗 10(1859)

目錄2卷1冊, 原集8卷4冊, 別集·拾遺·附錄8卷4冊, 共9冊: 四周雙邊 半郭 19.7 × 15.1 cm, 有界, 10行20字 注雙行, 上下向2葉花紋魚尾

版心題: 武陵集

刊記: 己未(1859)季夏德淵重刊

跋: 甲子(1564)六月二十三日眞城李滉謹白

識: 萬曆九年歲在辛巳(1581)三月有日男朝散大夫永川郡守兼春秋館編修官
[周]博謹識

重刊跋: 嘉義大夫前行兵曹參判完山柳致明謹識

跋: 先生易簣後三百六年己未(1859)七月有日傍後孫[周]相炫謹識

愼齋 周世鵬(1495-1554)의 시문집이다. 定齋 柳致明(1777-1861)의 중간발에 의하면 이 책의 서명은 주세붕이 생존 시에 스스로 지은 것을¹⁷⁾ 그대로 답습하여 쓴 것이다.

본래 주세붕의 유고는 그의 양자인 龜峯 周博(1524-1588)이 家藏草稿를 收合하고 退溪 李滉(1501-1570)에게 교정을 받아 明宗 19년(1564)에 군수로 재임하고 있던 영덕에서 초간하였다.¹⁸⁾ 그 후 초간본을 原集으로 만들고, 그 외에 이황이 가려 뽑은 것에서 제외된 시문을 別集 8卷으로 편집하여 宣祖 14년(1581)에 영천군수로 재임 중일 때 영천에서 목판본으로 중간하였다.¹⁹⁾

그 후 임진왜란을 겪으면서 간인된 책도 흩어져 전해지는 것이 드물게 되고 아울러 책판도 전해지지 않게 되었다. 이에 哲宗 10년(1851)에 주세붕의 直後孫 周秉恒(?-?)과 傍後孫 周相炫(?-?)이 陶山書院과 紹修書院에 보존된 인본과 문중에 전래하던 사본을 가지고 刻缺된 부분과 訛誤가 있는 곳을 考訂整理하

17) ‘其曰武陵雜稿者 似因先生草稿本題也’ 周世鵬, 『武陵雜稿』, 18卷9冊, 木板本 ([漆原]: 德淵[書院], 哲宗 10(1859)), <武陵雜稿重刊跋>[柳致明], 張2.

18) ① ‘先君遺稿摠若干卷 散亡者亦多謹哀所得 求正于退溪先生有年矣 歲在甲子 先生始擇選而歸之 頃在盈德縣 乃捐俸鋳梓’ 周世鵬, 『武陵雜稿』, <武陵雜稿跋>[周博], 張1右.
② ‘胤子校理公 哀梓先生詩文 以退溪所選者先刊’ 周世鵬, 『武陵雜稿』, <武陵雜稿重刊跋>[柳致明], 張2右.

19) ‘而尚有遺珠之恨 今復收拾其餘 添補編輯 以退溪所選者爲元集 以添補者爲別集 刊出如右 以俟來者’ 周世鵬, 『武陵雜稿』, <武陵雜稿跋>[周博], 張1.

현재 성암고서박물관에 零本 2책이 소장되어 있다.

고,²⁰⁾ 年譜, 碑銘 등을 增入하여 유치명의 교정을 거쳐²¹⁾ 三刊한 것이 이 책이다.

卷末에 ‘己未季夏 德淵重刊’이라는 간기가 있어서 己未年 6월에 德淵에서 중간했음을 알 수 있다. ‘己未’는 편자인 주상현이 작성한 識에 작성년이 ‘先生易簣後三百六年己未’로 표시되어 있으므로 哲宗 10년(1859)임을 알 수 있다. 간기에 발행지 표시가 없고 발행처명도 완전하지 못하다. 그러나 저자인 주세붕이 德淵書院의 배향자임을 고려한다면 간기의 德淵은 咸安의 德淵書院임이 분명하다. 그리고 발행지는 哲宗 10년(1859) 당시에는 漆原縣이었으며 함안군에 통합된 것은 光武 10년(1906) 때의 일이므로 漆原이 되겠다.

이 책의 책판 353매는 『守口齋先生文集』·『龜峰先生文集』의 책판과 함께 德淵書院과 인근한 慶尙南道 咸安郡 漆西面 武陵里 544번지에 위치한 武山祠 내의 藏板閣에 보관되어 오다가 최근에 새로 설립한 기념관으로 옮겨 보관하고 있는데, 1979년 12월 29일에 ‘무릉잡고책판및수구집귀봉집책판(武陵雜稿冊板및守口集龜峰集冊板)’이라는 명칭으로 352매가 경상남도유형문화재 제173호로 지정되었다. 그러나 현재 기념관에서 보관하고 있는 책판의 총수는 武陵雜稿冊板 353매, 守口齋先生文集冊版 64½매, 龜峰先生文集冊版 34½매로서 총 452매이다.²²⁾

武山祠는 주세붕의 영정과 유품을 모신 곳으로 肅宗 24년(1698)에 주세붕의 후손들이 세웠다.

판본은 건국대학교(811.9-주53口), 경상대학교(D3B주53口(오림)), 경성대 향토문화연구소, 계명대학교(고811.081주세붕口, 이811.081주세붕口), 국립중앙도서관(한古朝46-가818), 규장각(奎4495, 奎4496), 동국대(810.819-주53口), 武山祠,

20) ‘乃與本孫秉恒 蒐合陶山·紹修兩院所在印本與家間寫本 其頑缺者訛舛者 參互考訂 而復往質于大坪丈席 繕寫八冊 付之剞劂 以廣其傳’ 周世鵬, 『武陵雜稿』, <武陵雜稿跋> [周相炫], 張5.

21) ‘益以年譜·碑銘及凡爲先生而作而未刊者又一冊 俾致明書其事于卷末 且請重加整理’ 周世鵬, 『武陵雜稿』, <武陵雜稿重刊跋> [柳致明], 張2左-3右.

22) 『책판목록 : 2005년 경상남도 일반동산문화재 다량소장처 실태조사 보고서(별책) : 마산시·밀양시·산청군·양산시·진해시·창녕군·창원시·하동군·함안군·함양군』 ([서울]: 문화재청, 2005), 125-137.

부산대, 영남대(味山文庫810.819-주세봉), 하바드 연경도서관(TK5568.2/7247), 한국학중앙연구원(K4-6011), 金戊祚 등 많은 곳에서 원본 혹은 결본을 소장하고 있다.

민족문화추진회가 1988년에 연세대학교본을 『(影印標點)韓國文集叢刊』, 第26, 27輯으로 영인하였는데, 이 때 隆熙 2년(1908)에 周時在(?-?) 등 후손들이 간인한 4권2책의 부록을 덧붙여 영인하였다.

4.3 西山書院

현위치: 慶尙南道 咸安郡 郡北面 院北里 537-1번지

창 건: 肅宗 29년(1703)

배향자: 趙旅(1420-1489) · 元昊(1396-1463) · 金時習(1435-1493) · 李孟專(1392-1480) · 成聃壽(?-1456) · 南孝溫(1454-1492)

肅宗 29년(1703)에 경상도 幼學 郭億齡(?-?) 등이 생육신인 漁溪 趙旅, 觀瀾 元昊, 梅月堂 金時習, 耕隱 李孟專, 文斗 成聃壽, 秋江 南孝溫 등의 并享이 사육신의 예에 따라 이루어짐이 마땅함을 국왕께 상소하여²³⁾ 율허를 받고 肅宗 32년(1706)에 창건하였다. 肅宗 39년(1713)에 ‘西山’으로 사액을 받았으나 高宗 5년(1868)에 훼손되었다. 光武 6년(1902)에 西山書堂으로 재건한 뒤 1980-1984년에 정부의 보조와 조려의 후손들과 유림의 협력으로 현 위치로 이전·복원하였다.

간인사실이 분명한 판본으로 다음의 3종이 있다.

漁溪先生集 / 趙旅(朝鮮) 著; 趙榮祐(朝鮮) 編. -- 木板本(重刊). -- [咸安] : 西山書院, 英祖 18(1742)序

23) 『仁祖實錄』, 卷38, 29年(1703) 10月 13日 乙酉條.

2卷1冊：四周單邊 半郭 20.6 × 15.2 cm, 有界, 9行16字 註雙行, 上下向黑魚尾

藏板記: 西山書院藏板

序: 崇禎紀元後百十有五年壬戌(1742)孟秋潘南朴弼周謹序

序: 正德丙子(1516)十一月上澣晉州姜渾士浩序

跋: 崇禎紀元後百十三季庚申(1740)閏六月壬子九代孫通訓大夫行安陰縣監
[趙]榮祐謹書

趙旅(1420-1489)의 시문집으로 漁溪는 조려의 號들 중 하나다.

『漁溪先生集』은 中宗 11년(1516)에 저자의 손자인 鷗村 趙績(1619-?) 형제가 詩 약간 首를 모아서 木溪 姜渾(1464-1519)의 서문을 받아 초간하였다. 그러나 이 초간본은 연대가 오래되고 병란을 거치면서 유실되어 詩 수십여 편과 강혼의 서문만이 후손가에 전해져 왔으나, 이 또한 많이 訛誤되어 거의 알아볼 수 없었다.²⁴⁾

그 후 英祖 18년(1742)에 9세손 觀我齋 趙榮祐(1686-1761)가 안음현감으로 있을 때 族人 趙埜(?-?)와 더불어 諸本을 모아 서로 참고하여 잘못된 것을 고치고 敍次를 바로잡아²⁵⁾ 목판으로 중간한 것이 이 판본이다. 이 중간본은 저자의 傳·碑銘 및 기타 저자와 관련된 詩文·疏啓 등을 卷2에 부록하여 2권1책으로 묶고 黎湖 朴弼周(1665-1748)의 序와 편자의 跋을 붙여 간인한 것이다.

판본에 간인 기록은 없으나 표제지에 ‘西山書院藏板’이라는 장판기가 있어서 西山書院에서 간인했음을 알 수 있다. 장판기에 장판지 표시는 없다. 이 책의 간인 무렵에 西山書院이라 불리던 곳은 이 곳 외에도 尙州, 全州, 平壤 等地에도

24) ‘先生既沒之後二十八年 孫參判公兄弟 刻其遺集 而木溪姜判書渾 爲之序 年代已遠 且經兵燹 所刻舊本 失而不傳 獨其詩律數十餘篇 及木溪子序文 間或書傳於後孫之家 而亦多訛誤 幾不可識 則爲子孫之慨恨久矣’ 趙旅, 『漁溪先生集』, 2卷1冊, 木板本 ([咸安]: 西山書院, 英祖18(1742)序), <跋>[趙榮祐], 張1.

25) ‘榮祐來監安陰 趙埜史汝氏 自咸安至而言曰 先生遺篇 所存雖極少 不可使遂以泯沒 子其圖之 此實榮祐之志也 而諸宗人又出錢若干以相役 卽收京鄉所在諸本 與史汝氏 參考同異 正其誤而釐其敍次’ 趙旅, 『漁溪先生集』, <跋>[趙榮祐], 張1左-2右.

있었으나, 조리를 배향한 곳은 이 곳 咸安의 西山書院 뿐이다. 따라서 표제지의 西山書院은 咸安 所在의 西山書院임이 틀림없다.

발행년은 卷頭에 있는 박필주가 지은 서문의 작성년도로 보아 英祖 18년 (1742)경으로 추정된다.

판본은 계명대학교(이811.081조려어), 고려대학교(D1-A249), 국립중앙도서관(한古朝45-가95), 규장각(奎4561), 동국대학교(810.819-조6402), 성균관대학교(D03B-0696), 영남대(151.51) 등 여러 곳에서 소장하고 있다.

咸安趙氏十忠實錄 / 趙希孟(朝鮮) 編 ; 趙輝晉(朝鮮) 重訂. -- 木板本. --
[咸安], 西山書院, 正祖 8(1784)序
26張 : 四周雙邊 半郭 19.3 × 14.8 cm, 有界, 10行 20字 註雙行, 內向2葉花紋魚尾

版心題: 趙氏十忠實錄

藏板記: 西山書院藏板

手書刻序: 聖上八年(正祖 8, 1784)輔國崇祿大夫行判中樞府事兼兵曹判書判義禁府事知經筵春秋館事弘文館提學藝文館提學世孫左賓客奎章閣提學平康蔡濟恭謹書

識: 歲丁丑(1757)仲春下澣道谷公玄孫[趙]希孟敬書

識: 聖上五年辛丑(1781)黃花節忠毅公後孫[趙]輝晉敬書

識: 忠毅公後孫[趙]滂敬書

咸安趙氏의 열 충신에 대한 事蹟을 기록한 책으로, 趙希孟(?-?)이 編하고 후손인 趙輝晉(1729-1796)이 重訂했다.²⁶⁾

26) ① ‘李朝趙希孟編, 後孫輝晉重訂’ 徐有榘, 『鏤板考』, 966.

② ‘族大父希孟氏 始收錄之 宗侄養愚 又輯成之 三從弟輝晉 又以樊菴蔡相公之文…’ 趙希孟 編, 『咸安趙氏十忠實錄』, 26張, 木板本 ([咸安] 西山書院, 正祖 18(1794)序), <識> [趙滂].

열 충신은 趙旅(1420-1489)와 그의 후손들인 趙鵬(1534-1592), 趙墀(1557-1638), 趙宗道(1537-1597), 趙俊男(1547-1592), 趙信道(1554-1585), 趙敏道(1556-1592), 趙凝道(?-1597), 趙益道(1575-1647), 趙善道(1580-1640) 및 趙繼先(1570-1627)을 일컫는다.²⁷⁾

관본에 간인 기록은 없으나 卷末에 ‘西山書院藏板’이라는 장판기가 있어서 西山書院에서 간인했음을 알 수 있다. 장판기에 발행지 표시는 없지만 咸安이 분명한 것은 앞의 『漁溪先生集』에서 설명한 바와 같다.

발행년은 卷頭に 있는 樊巖 蔡濟恭(1720-1799)이 지은 서문의 작성년도로 보아 正祖 8년(1784)경으로 추정된다.

관본은 경상대학교(B9C조97호(면우), B9C조989호(오림)), 계명대학교((고)173.3조휘진호), 성균관대학교(B09C-0443-省軒), 연세대학교(고서(II)929.21-조합안) 등에서 소장하고 있다.

咸安趙氏十忠實錄 / 趙希孟(朝鮮) 編; 趙輝晉(朝鮮) 重訂. -- 木板本(重刊).

-- [咸安], 西山書院, 正祖 18(1794)序

34張: 四周雙邊 半郭 19.3 × 14.8 cm, 有界, 10行20字 註雙行, 內向2葉花紋魚尾

版心題: 趙氏十忠實錄

藏板記: 西山書院藏板

手書刻序: 聖上八年(正祖 8, 1784)輔國崇祿大夫行判中樞府事兼兵曹判書判義禁府事知經筵春秋館事弘文館提學藝文館提學世孫左賓客奎章閣提學平康蔡濟恭謹書

識: 歲丁丑(1757)仲春下澣道谷公玄孫[趙]希孟敬書

識: 聖上五年辛丑(1781)黃花節忠毅公後孫[趙]輝晉敬書

27) ‘十忠者 趙旅·趙鵬·趙墀·趙宗道·趙俊男·趙信道·趙敏道·趙凝道·趙益道·趙善道·趙繼先也’ 徐有渠, 『鏤板考』, 966.

識: 忠毅公後孫[趙]滂敬書

序: 聖上十八年(正祖 18, 1794)輔國崇祿大夫原任吏曹判書兼判義禁府事知經筵事弘文館大提學知成均館春秋館事五衛都摠府都摠管洪良浩序

附: 咸安趙氏十三忠實錄

<咸安趙氏十三忠實錄>이란 제명 아래에 趙壽千(1472-?), 趙坦(1552-?) 및 趙亨道(1547-1637)의 3인의 事蹟을 새로 새겨 위에서 설명한 正祖 18년(1794)경의 『咸安趙氏十忠實錄』에 合附하여 인출한 것이다.

正祖 8년(1784)경의 『咸安趙氏十忠實錄』과 마찬가지로 판본에 간인 기록은 없으나 ‘西山書院藏板’이라는 장판기가 있어서 西山書院에서 간인했음을 알 수 있다. 장판기에 발행지 표시는 없지만 咸安이 분명한 것은 앞서 설명한 바와 같다.

발행년은 <咸安趙氏十三忠實錄>의 卷頭に 있는 耳溪 洪良浩(1724-1802)의 서문 작성년도로 보아 正祖 18년(1794)경으로 추정된다.

판본은 고려대학교(만송B12-A493), 연세대학교(고서(III)2246), 영남대학교(古南991.1-함안조), 중앙대학교(O929.2-조휘진함), 하바드 연경도서관(TK2294.5/4853) 등에서 소장하고 있다.

책판목록과 읍지의 장판기록으로 보아 이 서원에서 간인했을 가능성이 있는 판본으로는 아래의 1종이 있다.

損庵集 / 趙根(朝鮮) 著; 趙榮祐(朝鮮) 編. -- 木板本. -- [發行地不明]: [發行處不明], 英祖 25(1749)跋

原集8卷3冊, 年譜·附錄1冊, 共4冊: 四周單邊 半郭 21.7 × 14.4 cm, 有界, 10行20字 註雙行, 上黑魚尾

序: 崇禎紀元後再甲子(1744)四月上澣龍仁李宜顯謹序

跋: 崇禎紀元後百二十二年己巳(1749)良月甲申從子通訓大夫行白川郡守
[趙]榮祐謹識

조선 중기의 문신인 損庵 趙根(1631-1680)의 시문집이다. 저자의 本貫은 咸安으로 배향자 중의 한 사람인 趙旅의 후손이다.

이 관본의 卷末에 있는 저자의 조카인 觀我齋 趙榮祐(1686-1761)이 英祖 25년(1749)에 지은 발문과²⁸⁾ 隆熙 2년(1908) 중간본에 수록된 저자의 7세손인 趙錫奎(?-?)가 隆熙 2년(1908)에 지은 발문을²⁹⁾ 통해서, 저자의 아들인 趙毅道(?-?)가 엮었음을 알 수 있다.

구체적인 서원 간인 기록은 찾지 못했으나, 책판목록과 읍지의 장관기록들을 통해 서원 간인 사실을 추정할 수 있다. 『林園十六志』, 怡雲志 7, 圖書藏訪, 京外鏤板, 集類條와³⁰⁾ 『鏤板考』, 集部 下の 別集類 下에³¹⁾ ‘咸安西山書院藏’으로 所載되어 있는 ‘損菴集 九卷’과 『書冊目錄』의 各邑所在, 咸安條와³²⁾ 『冊板錄』의 慶尙道各邑所在冊板 아래의 咸安條에³³⁾ ‘在西山書院’으로 所載되어 있는 ‘損庵集四卷’이 모두 이 책의 책판을 가리킨다. 『書冊目錄』과 『冊板錄』에는 『林園十六志』나 『鏤板考』와는 달리 ‘四卷’으로 표기되어 있는데, 이는 책수를 표기할 때 단위를 모두 卷으로 표기하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慶尙道邑誌』에서는 第15冊에 수록된 <咸安郡邑誌>의 마지막에 있는 <冊板>條에 西山書院에 있다고 기록되어 있는 ‘損庵集板’이 이 관본의 책판으로 추정된다.³⁴⁾

발행년은 권말에 있는 조영석이 지은 발문의 작성년도로 보아 英祖 25년(1749)

28) ‘惟我伯父損庵府君文集 伯氏叅判公所輯錄…’ 趙根, 『損菴集』, 8卷4冊, 木板本 ([發行地不明]: [發行處不明], 英祖 25(1749)跋), <跋>[趙錫奎], 張1左.

29) ‘…子叅判公諱毅道…’ 趙根, 『損菴集』, 8卷4冊, 木板本 ([發行地不明]: [發行處不明], 隆熙 2(1908)), <跋>[趙錫奎], 張3左.

30) 徐有渠 編, 『林園十六志』, 899.

31) 徐有渠, 『鏤板考』, 1159.

32) 『書冊目錄』, 1215.

33) 『冊板錄』, 1493.

34) ‘損庵集板 在西山書院’ 韓國學文獻研究所 編, 『邑誌』, 一 慶尙道 編①, 713.

경으로 추정된다.

판본은 규장각(奎6326)과 한국학중앙연구원(K4-6179)에서 소장하고 있다.

4.4 松汀書院

현위치: 慶尙南道 咸安郡 山仁面 松丁里

창 건: 景宗 1년(1721)

배향자: 趙任道(1585-1664) · 李僞(1535-1600) · 朴齊仁(1536-1618)

景宗 1년(1721)에 仁祖 때의 문신·학자인 澗松堂 趙任道를 제향하기 위해 晉州의 幼學 孫翼龍(?-?) 등이 상소하여 윤허를 얻어³⁵⁾ 건립한 서원이다. 『慶尙道誌』에는 篁谷 李僞과 宣祖 때의 문신인 篁岳 朴齊仁도 배향하고 있는 것으로³⁶⁾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추배된 것으로 생각된다. 흥선대원군의 서원철폐령으로 高宗 5년(1868)에 훼손되어 현존하지 않으며 그 옛터에 追哀碑만 남아 있다. 松亭書院으로도 불렸다.

간기가 있어서 간인사실이 분명한 판본으로 다음의 1종이 있다.

金羅傳信錄 / 趙任道(朝鮮) 著. -- 木板本(初刊). -- [咸安]: 松汀書院, 純祖 13(1813)

2卷2冊: 四周雙邊 半郭 20.4 × 14.6 cm, 有界, 10行20字 注雙行, 內向不定魚尾

刊記: 己卯(1639)後百七十五年癸酉(1813)松汀書院開刊

序: 崇禎己卯(1639)二月初旬郡人龍華山老趙任道序

35) 『景宗實錄』卷3, 景宗 1年(1721) 5月 22日條.

36) 李鉉式, 『慶尙道誌』, 29卷2冊, 新鉛活字本(金海郡: 具翰會, 昭和 11(1936)), 卷9, 張61左.

跋: 乙亥(1695)季夏日族孫趙錫圭謹跋

後跋: 癸亥(1803)四月日郡守完山後人李彙晉謹跋

함안의 역사와 고려 말 충신 李芳實將軍(1298-1362)을 비롯한 함안 출신들의 업적을 기록한 것으로 仁祖 17년(1639) 2월에 澗松 趙任道(1585-1664)가 지었다.³⁷⁾ 金羅는 咸安의 옛 지명이다.³⁸⁾

卷頭に 있는 仁祖 17년(1639)에 조임도가 지은 서문의 기록이 끝난 바로 다음에 ‘己卯後百七十五年癸酉 松汀書院開刊’이라는 간기가 있어서 개간 사실을 알 수 있다. ‘己卯’는 조임도가 이 책을 편찬하고 서문을 작성한 해로 조임도의 생몰년에 비추어 보면 仁祖 17년(1639)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그 후 175년이 지난 癸酉年은 純祖 13년(1813)이 된다. 따라서 이 책은 純祖 13년(1813)에 松汀書院에서 개간한 것이다. 간기에 발행지 표시는 없으나, 松汀書院이라 불린 서원은 이 곳 뿐이며 金羅는 咸安의 옛 지명이므로 발행지는 咸安이 되겠다.

관본은 경상대학교(D2B조69ㄱ(기리)), 국립중앙도서관(古3649-1), 신라대학교(집1-금23) 등에서 소장하고 있다.

이 책을 찍은 책판은 『澗松先生文集』의 책판과 함께 총190매가 현재 慶尙南道 咸安郡 代山面 長巖里에 있는 合江亭³⁹⁾에 보존되어 있다.⁴⁰⁾ 1979년 12월 29일에 ‘간송문집책판및금라전인[신]록책판(澗松文集冊板및金羅傳言[信]錄冊板)’이라는 명칭으로 경상남도유형문화재 제180호로 지정되었으며 咸安趙氏門中에서 관리하고 있다.

37) ① ‘此吾傳信錄之所以作也’ 趙任道, 『金羅傳信錄』, 2卷2冊, 木板本 ([咸安]: 松汀書院, 純祖 13(1813)), <金羅傳信錄序>[趙任道], 張1右.

② ‘予於族祖澗松先生所作 金羅傳信錄一再閱…’ 趙任道, 『金羅傳信錄』, <跋>[趙錫圭], 張1左.

③ ‘金羅傳信錄者 則澗松堂趙先生 所哀輯撰著也’ 趙任道, 『金羅傳信錄』, <後跋>[李彙晉], 張3左.

38) 정호완, “함(咸)-계 지명의 형태와 의미,” (우리말글학회)『우리말글』 25(2002. 8), 4.

39) 合江亭은 趙任道가 수학하던 곳이다.

40) ‘문화재청’ <http://www.cha.go.kr> [2009. 11. 22. 검색].

책판목록과 읍지의 장관기록으로 보아 이 서원에서 간인했을 가능성이 있는 판본으로는 아래의 1종이 있다.

澗松先生文集 / 趙任道(朝鮮) 著 ; 趙弘燁(朝鮮) 等編. -- 木板本. -- [發行地不明] : [發行處不明], 英祖 20(1744)序

5卷, 別集2卷, 共4冊 : 世系圖, 四周雙邊 半郭 20.4 × 14.5 cm, 有界, 10行20字 註雙行, 上下內向白魚尾

版心題: 澗松集

手書刻序: 上之二十年甲子(1744)十有二月乙丑後學平原李光庭序

澗松 趙任道(1585-1664)의 詩文集이다.

저자의 玄孫 趙弘燁(?-?)이 家藏草稿를 바탕으로 수집하여 編定한 뒤 英祖 20년(1744) 겨울에 訥齋 李光庭(1674-1756)에게 勘定과 編次를 부탁하고 서문을 청하였다.⁴¹⁾ 이에 이광정이 묘갈명을 짓고, 아울러 자신의 門人 江左 權萬(1688-1749), 觀竹堂 權壽(1690-1751) 등과 함께 校訂하고, 梁天翼(1638-1711)이 편찬한 年譜를⁴²⁾ 합쳐서 原集 5권, 別集 2권으로 編定하여 7권 4책의 定稿本을 완성한 뒤⁴³⁾ 서문을 지었다.

이 판본의 서원 간인 여부는 확실하지 않다. 먼저 기존의 해제들을 살펴보면, 한국고전번역원의 해제에서는 “... 정고본이 완성된 뒤 곧이어 저자를 배

41) ‘今年冬 先生玄孫弘燁氏 奉先生遺文 北走四百餘里 抵不佞曰 先祖棄斯世八十餘年 其遺文不行於世 願吾子勘正 而且序其所編次者焉’ 趙任道, 『澗松先生文集』, 7卷4冊, 木板本 ([發行地不明]: [發行處不明], 英祖 20(1744)序), <澗松先生文集序>[李光庭], 張5.

42) ‘一日 公之曾孫穩 不遠數百里 訪余於花山之錦陽里 辱示公嗣子咸抃所述家傳行實記一通 及龍城梁君天翼所次年譜一篇 請所以狀其行者’ 李玄逸, 『葛庵先生文集』, 21卷21冊, 木板本 ([發行地不明]: [發行處不明], 隆熙 3(1909)), 別集 卷6, 行狀, <工曹佐郎贈司憲府持平澗松趙公行狀>, 張27右.

43) ‘乃與前騎省郎權君萬 及其從弟壽 相與核訂 序次如左 而又書 其平日所嘗感慨者 以俟後人’ 趙任道, 『澗松先生文集』, <澗松先生文集序>[李光庭], 張6左.

향한 咸安의 松亭書院에서 간행되었으리라 추측된다”⁴⁴⁾고 하여 간인 가능성만 인정하고 있는 반면, 규장각의 해제에서는 “... 1744년경에 다시 보완되어 咸安의 松亭書院에서 木板으로 간행되었다”⁴⁵⁾고 하여 간인을 확정하고 있다. 그러나 서원 간인 사실을 증명할 만한 분명한 증거는 찾을 수 없었다. 다만 발행처는 장판목록과 읍지의 장판기록에 의해 松汀書院일 것으로 짐작될 뿐인데, 즉 책판목록에서는 『林園十六志』, 怡雲志 7, 圖書藏訪, 京外鏤板, 集類條와⁴⁶⁾ 『鏤板考』, 集部 下の 別集類 下에⁴⁷⁾ 각각 咸安 松汀書院에 藏板되어 있는 것으로 所載되어 있는 ‘澗松堂集’과 『書冊目錄』의 各邑所在 아래와⁴⁸⁾ 『冊板錄』의 慶尙道各邑所在冊板 아래⁴⁹⁾ 咸安條에 각각 ‘在松亭書院’이라고 所載되어 있는 ‘澗松堂集四卷’이 이 판본의 책판으로 추정되고, 읍지에서는 『慶尙道邑誌』의 <咸安郡邑誌>, <冊板>條에 ‘在松汀書院’으로 표시된 ‘澗松集板’이 이 판본의 책판으로 추정된다.⁵⁰⁾ 따라서 이 판본은 松汀書院에서 간인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발행년은 이광정이 작성한 서문의 작성년월이 英祖 20년(1744) 12월인 것으로 미루어 보아 이듬해인 英祖 21년(1745)경으로 짐작될 뿐이다.

판본은 고려대학교(D1-A828), 국립중앙도서관(古3648-72-157), 규장각(奎11650), 성균관대학교(D03B-0008), 하버드 연경도서관(TK5568.2/4823) 등에서 완질 혹은 영본을 소장하고 있다.

이 책을 찍은 책판의 현황에 대해서는 위에서 이미 자세히 밝힌 바와 같다.

44) ‘한국고전종합DB’ <http://db.itkcdb.or.kr/itkcdb/mainIndexIframe.jsp> [2009. 12. 3. 검색].

45) ‘규장각’ <http://e-kyujanggak.snu.ac.kr> [2009. 11. 22. 검색].

46) 徐有榘 編, 『林園十六志』, 896.

47) 徐有榘, 『鏤板考』, 1146.

48) 『書冊目錄』, 1216.

49) 『冊板錄』, 1493.

50) 韓國學文獻研究所 編, 『邑誌』, 一 慶尙道 編①, 713.

4.5 廬陽書院

현위치: 慶尙南道 咸安郡 余航面 外巖里 405-1번지

창 건: 肅宗 46년(1720)

배향자: 李景番(1606-1673) · 李景茂(1609-1679) · 安宅(?-?) · 趙參
(1473-?) · 朴旵(?-?) · 李明恬(1565-1624)

肅宗 46년(1720)에 三悅堂 李景番과 晚默堂 李景茂 형제를 향사하는 廬陽祠로 창건되었다. 그 후 正祖 13년(1789)에 서원으로 승격되어 廣陵子 安宅을 함께 향사하게 되고, 또 純祖 2년(1802)에는 서원을 중수하고 無盡 趙參, 桐川 朴旵, 梅竹軒 李明恬을 다시 올려 향사하는 서원으로 사람들의 본보기가 되었다. 흥선대원군의 서원철폐령으로 高宗 5년(1868)에 훼철된 후 지금은 그 옛터에 유허비만 남아 있다.⁵¹⁾

간기가 있어서 간인사실이 분명한 판본으로 다음의 1종이 있다.

晚默堂先生文集 / 李景茂(朝鮮) 著 ; 李弼新(朝鮮) 編. -- 木板本. -- [咸安] : 廬陽書院, 憲宗 5(1839)

2卷1冊 : 四周單邊 半郭 20.0 × 15.7 cm, 10行20字 註雙行, 內向2葉花紋魚尾

版心題: 晚默堂集

刊記: 己亥(1839)季穰廬陽書院開刊

序: 崇禎四丙申(1836)季春恩津宋穉圭述

跋: 歲丙申(1836)十二月既望順興後人安夢伯識

跋: 己亥(1839)八月二十七日六世孫[李]柱新謹識

51)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http://www.ccp.go.kr> [2005. 12. 28. 검색].

晩默堂 李景茂(1609-1679)의 시문집이다.

권말에 있는 저자의 6세손인 李柱新(?-?)이 쓴 발문과⁵²⁾ 1921년에 간인한 중간본의 권말에 있는 저자의 9세손인 信菴 李準九(1851-1924)가 쓴 발문에⁵³⁾ 의하면, 그의 아버지 李運昌(?-?)이 5代祖인 이경무의 遺稿를 수습해둔 것을 이주신의 再從兄인 李弼新(?-?)이 刪定하여 엮었음을 알 수 있다.

卷末에 ‘己亥季穉 廬陽書院開刊’이라는 간기가 있어서 憲宗 5년(1839) 9월에 廬陽書院에서 개간했음을 알 수 있다. 간기에 발행지 표시는 없으나, 廬陽書院이라 불린 서원은 이 곳 뿐이므로 발행지는 咸安이 될 것이다.

판본은 국립중앙도서관(古3648-62-902), 연세대학교(고서(III)1085, 고서(III)3411), 한국학중앙연구원(D3B-1220) 등에서 소장하고 있다.

5. 판본의 성격

전체 9종의 판본들 중 조선시대에 함안의 서원들에서 발행한 것이 확실한 판본은 『武陵雜稿』, 『漁溪先生集』, 『咸安趙氏十忠實錄』(1784序), 『咸安趙氏十忠實錄』(1794序), 『金羅傳信錄』 및 『晩默堂先生文集』의 6종이고 발행했을 가능성이 있는 판본은 『大笑軒先生逸稿』, 『損庵集』 및 『澗松先生文集』의 3종이다.

먼저 판본들의 주제에 관해서 살펴보면, 발행이 확실한 판본의 경우 전체 6종 중 3종(『武陵雜稿』, 『漁溪先生集』 및 『晩默堂先生文集』)이 集部의 別集類에 속하고, 나머지 3종(『咸安趙氏十忠實錄』(1784序), 『咸安趙氏十忠實錄』(1794序) 및 『金羅傳信錄』)은 史部의 傳記類에 속하여 集部의 別集類와 史部의 傳記

52) ‘我先考 慨然收拾於斷爛之餘 方謀鋟梓…再從兄弼新氏 就府君遺稿刪定 爲一篇…’ 李景茂, 『晩默堂先生文集』, 2卷1冊, 木板本 ([咸安]: 廬陽書院, 憲宗 5(1839)), <跋>[李柱新], 張1右-2左.

53) ‘…五世而敬庵公運昌 乃蒐輯之 六世而廬齋公弼新 始克登梓行于世 已百季…’ 李景茂, 『晩默堂先生文集』, 2卷1冊, 木板本 ([發行地不明]: 推本齋, 1921), <重刊跋>[李準九], 張1左.

類가 각각 50%가 된다. 그러나 발행했을 가능성이 있는 판본 3종이 모두 集部의 別集類에 속하므로 후자까지 포함한 전체 판본의 주제는 集部의 別集類가 6종, 史部의 傳記類가 3종으로 각각 약 67%와 33%에 해당된다. 이를 통해 조선시대에 함안의 서원들에서는 集部의 別集類인 문집을 주로 발행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版種에 대해서 살펴보면, 발행했을 가능성이 있는 판본까지 포함한 전체 9종의 판본이 모두 목판본이었다.

발행 시기에 대해서 살펴보면, 발행한 것이 확실한 판본은 18C와 19C에 각각 3종씩 발행되었고, 발행했을 가능성이 있는 판본은 3종 모두 18C에 발행되었다. 따라서 발행했을 가능성이 있는 판본까지 포함하면 전체 9종의 판본 중 6종이 18C에, 3종은 19C에 각각 발행되어 18C에 간행활동이 상대적으로 왕성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마지막으로 판본과 배향자와의 관련성에 대해서 살펴보면, 발행한 것이 확실한 판본 6종 중 『威安趙氏十忠實錄』 2종의 편자만 배향자의 후손으로서 간접적인 관련을 가지고 있을 뿐, 나머지 4종은 모두 발행한 서원의 배향자들이다. 그리고 발행했을 가능성이 있는 판본 3종 중에서는 『損庵集』의 저자만 관련 서원 배향자의 후손일 뿐 나머지 2종의 저자는 관련 서원의 배향자들이다. 따라서 전체 9종의 판본 중 6종의 저자가 배향자 본인들이고, 3종의 편·저자는 배향자의 후손으로서 판본과 배향자와의 관련성은 매우 밀접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서원들이 서원의 기본적인 두 가지 주요 기능인 강학과 제향의 기능 때문에 배향자와 관련이 있는 서적들을 많이 발행한다는⁵⁴⁾ 주지의 사실과도 일치하는 것이다.

6. 나오면서

지금까지 1910년 경술국치 당시의 경남 함안군에 所在했거나 所在한 적이 있었던 서원들에서 그때까지 발행했거나 발행했을 가능성이 있는 판본들을 살펴

54) 윤상기, “경남 함양군의 서원판본에 대한 연구,” 267.

보았다. 조사된 바로는 그 중 발행사실이 확실한 것은 6종으로 『武陵雜稿』, 『漁溪先生集』, 『咸安趙氏十忠實錄』(1784序), 『咸安趙氏十忠實錄』(1794序), 『金羅傳信錄』 및 『晚默堂先生文集』이고, 발행했을 가능성이 있는 판본은 3종으로 『大笑軒先生逸稿』, 『損庵集』 및 『澗松先生文集』이다. 이들 판본들에 대해서는 서지사항을 정밀기술하고 서원판본임을 밝히거나 발행 가능성을 제시했다.

발행했을 가능성이 있는 판본들까지 포함한 전체 9종의 판본들을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점들을 밝혀냈다.

첫째, 集部の 別集類가 6종이고 史部の 傳記類가 3종으로 集部の 別集類가 다수이다.

둘째, 모두 목판본이다.

셋째, 18C에 발행된 것이 6종이고 19C에 발행된 것이 3종으로 주로 18C에 발행되었다.

넷째, 6종의 저자가 관련 서원의 배향자 본인들이고 3종의 편·저자는 배향자의 후손들로서 모두 관련 서원의 배향자들과 직·간접으로 관련이 있다.

앞으로 꾸준한 자료발굴을 통하여, 발행했을 가능성이 있는 3종의 판본들에 대한 분명한 발행여부 확인과 새로운 서원판본들을 찾아내는 일이 과제로 남아 있다.

<참고문헌>

‘경남통계연보’ http://www.gsnd.net/03_open/04_statistics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http://www.ccp.go.kr>

‘규장각’ <http://e-kyujanggak.snu.ac.kr>

‘문화재청’ <http://www.cha.go.kr>

‘한국고전종합DB’ <http://db.itkc.or.kr/itkcdb/mainIndexIframe.jsp>

‘함안군’ <http://www.haman.go.kr>

『景宗實錄』

『仁祖實錄』

『朝鮮の姓』. 複製本. 서울: 民俗苑, 1989.

『책판목록 : 2005년 경상남도 일반동산문화재 다량소장처 실태조사 보고서(별책)
: 마산시·밀양시·산청군·양산시·진해시·창녕군·창원시·하동
군·함안군·함양군』. [서울]: 문화재청, 2005.

안장현 사진, 이상해 글. 『書院』. 서울: 열화당, 1998.

윤상기. “경남 함양군의 서원판본에 대한 연구.” 『書誌學研究』 第32輯(2005. 12),
237-271.

李景茂. 『晚默堂先生文集』. 2卷1冊. 木板本. [發行地不明]: 推本齋, 1921.

李景茂. 『晚默堂先生文集』. 2卷1冊. 木板本. [咸安]: 廬陽書院, 憲宗 5(1839).

이수건. 『한국의 성씨와 족보』.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2003 (한국의 탐구 25).

李鉉式. 『慶尙道誌』. 29卷2冊. 新鉛活字本. 金海郡: 具翰會, 昭和 11(1936).

李玄逸. 『葛庵先生文集』. 21卷21冊. 木板本. [發行地不明]: [發行處不明], 隆熙
3(1909).

鄭亨愚·尹炳泰 編著. 『韓國의 冊板目錄』 補遺·索引. 서울: 保景文化社, 1995.
(延世大學校 國學研究院 國學研究叢書 4).

鄭亨愚·尹炳泰 編著. 『韓國의 冊板目錄』 下. 서울: 保景文化社, 1995 (延世大
學校 國學研究院 國學研究叢書 4).

趙根. 『損菴集』. 8卷4冊. 木板本. [發行地不明]: [發行處不明], 英祖 25(1749)跋.

趙根. 『損菴集』. 8卷4冊. 木板本. [發行地不明]: [發行處不明], 隆熙 2(1908).

趙旅. 『漁溪先生集』. 2卷1冊. 木板本. [咸安]: 西山書院, 英祖18(1742)序.

曹植 等著, 韓國學文獻研究所 編. 『南冥集·德溪集·介庵集·玉洞集·篁岳
集·大笑軒集·禮谷集·覺齋集』. 서울: 亞細亞文化社, 1981 (李朝中
期思想叢書).

趙任道. 『澗松先生文集』. 7卷4冊. 木板本. [發行地不明]: [發行處不明], 英祖
20(1744)序.

趙任道. 『金羅傳信錄』. 2卷2冊. 木板本. [咸安]: 松汀書院, 純祖 13(1813).

書誌學研究 第44輯(2009. 12)

趙宗道. 『大笑軒先生逸稿』. 3卷1冊. 木板本. [發行地不明]: [發行處不明], 英祖 45(1769)序.

趙希孟. 『咸安趙氏十忠實錄』. 26張. 木板本. [咸安]: 西山書院, 正祖 18(1794)序.

周世鵬. 『武陵雜稿』. 18卷9冊. 木板本. [漆原]: 德淵[書院], 哲宗 10(1859).

韓國學文獻研究所 編. 『邑誌』, 一 慶尙道 編①. 影印本. 서울: 亞細亞文化社, 1982.